

## 제12장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들

동석기 전도자는 북청 지역에 6개 교회를 개척하였고, 1개 교회가 설립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여기서 그의 교회 개척 사역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경의 감시(監視)와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조선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 외국 선교사가 아닌 조선인 선교사답게 기도하면서 교회들을 설립하는 일에 분투(奮鬪)했다는 사실은 그 의의(意義)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석기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들에 관한 기록을 최근에 찾아 소지(所持)하게 된 국가 기록원[國家記錄院,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의 자료와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의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함전기독의교회[咸田基督の教會,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당 주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초리 1997번지에 있었다. 『총독부 관보』(1938.6.21.), 3427호.]

(2) 서흥기독의교회[西興基督の教會, 서흥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당 주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서흥리 360-6번지에 있었다. ‘시흥리교회’라고 소개되고 있

었지만, 동석기 전도자는 ‘서흥교회’로 등록을 하였다. [『총독부 관보』(1938.6.21.), 3427호.]

(3) 수동기독의교회[水東基督の教會, 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당 주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 1078-3번지이다. [『총독부 관보』(1938.9.28.), 3511호.]

(4) 수서리기독의교회[水西里基督の教會, 수서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당 주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서리 607번지이다. [『총독부 관보』(1941.1.30.), 4205호.]

(5) 빙애기독의교회[氷崖基督の教會, 빙애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당 주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08번지에 있었다. ‘임자동교회’라고 알려졌었지만, 동석기 전도자는 ‘빙애교회’로 등록을 하였다. [『총독부 관보』(1938.6.21.), 3427호.]

(6) 만경기독의교회[萬景基督の教會, 만경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당 주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165번지에 있었다. ‘맹정리교회’라고 소개되고 있었지만, 동석기 전도자는 ‘만경교회’로 등록을 하였다. [『총독부 관보』(1938.6.21.), 3427호.]

(7) 죽평기독의교회[竹坪基督の教會, 죽평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당 주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죽평리 603번지에 있었다. 지금까지 ‘증산리교회’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동석기 전도자는 ‘죽평교회’로 등록을 하였다. [『총독부 관보』(1938.9.3.), 3491호.]

여기서 죽평교회는 동석기 전도자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는 성결교회 출신인 양석문 전도자이다. 그는 동석기의 영향으로 환원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아가던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먼저 스승 동석기에게 알리고, 다음으로 그 주택을 개조하여 예배당으로 삼아 교회를 시작하므로 죽평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동석기 전도자는 ‘1945년 8·15해방 이전까지 북한지역에만 교회를 설립하고 남한지역에는 설립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남한지역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한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교회는 바로 ‘다옥정 기독교교회[茶屋町 基督の教會, 다옥정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당 주소는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현 서울 중구 다동) 48번지’로 되어있다. [『총독부 관보』(1937.10.9.), 3221호] 여기서 다옥정교회는 지금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교회이며, 필자가 최초로 언급한 교회임을 밝힌다.

동석기 선교사는 1937년 7월 6일(화) 조선총독부에 다옥정교회 설립에 대하여 등록을 함과 동시에 ‘基督の教會(그리스도의 교회) 포교관리사무소(布教管理事務

所, 선교 본부)’도 등록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  
 옥정교회 예배당 주소와 포교관리사무소 그리고 포교  
 관리자(基督の教會 대표)인 동석기의 주소를 같은 곳  
 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이다. [『총독부 관보』(1937.8.30.)  
 3188호, 0999.] 그러나 다옥정교회에 관한 기록은 이 기  
 록 외에는 동석기 자신도 언급하지 않았던 교회로 많  
 은 의문점이 생긴다.

●布教管理者設置届		布教規則第七條第二項ニ依リ布教管理者設置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	敎宗派名稱	布教管理者ノ住所及布教管理事務所ノ位置
昭和十二年五月十二日	基督の教會	京畿道京城府茶屋町四十八番地・
●寺有林伐探許可		
許可年月日	伐探區域	伐探方法
昭和十二年八月二十六日	京畿道加平郡下面下板里山百四十四番地ノ一懸燈寺有林野二	伐探樹種及數量
十六日	十六町二段三畝步中十六町步	伐探期間
○産業		出願人
鐵業事項		鐵業事項左ノ如シ
朝鮮總督府官報 第三二八八號		昭和十二年八月三十日(第三種郵便物認可)

基督の教會 포교관리자(동석기) 설치계

그렇다면 동석기 선교사가 ‘당시 총독부 정책을 반  
 대할 수 없는 상황과 미국 교회와의 원활(圓滑)한 연

락 등을 위해 경성에 연락처를 두었는데, 그 연락처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다옥정교회’의 주소지를 만약에 ‘연락처(連絡處)’라는 정도로 가볍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동석기 선교사는 유령교회(幽靈敎會)와 유령포교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조선총독부를 속여 등록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아무튼, 다옥정교회가 있었던 ‘다옥정’은 현 중구 ‘다동’의 일제 강점기 시절 동명(洞名)이다. 다동은 조선 시대 차를 손님에게 대접하거나 마실 때의 예법인 다도(茶道)와 매달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또는 명절 날이나 조상의 생일날 등에 지내는 제사인 차례(茶禮)를 주관하던 사옹원(司饗院)에 속하여 궁중에서 약을 지어 바치던 부서인 다방(茶房)이 있던 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사옹원은 1392년(태조 원년) 사옹방(司饗房)으로 출발하여 1467년(세조 13년) 4월에 사옹원으로 개편된 관아로 임금과 대궐 안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다동은 조선 초기 한성부 남부 광통방의 일부였고, 영조 때는 한성부 남부 광통방 대다방북변계(大多坊北邊契, 큰 다방), 소다방남변계(小多坊南邊契, 작은 다방), 모전계 지역이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 때는 한성부 남서(南署) 광통방 상다동, 다동계 중다동과 하

다동, 중서(中署) 서린방, 합동계 모교 지역이었다. 그런데 일제가 1914년 4월 1일(수) 남부 중다동, 모교 상다동과 하다동 각 일부를 합쳐 ‘다옥정’으로 개편하였다. 이어 1943년 6월 10일(목) 구(區)제도를 실시하면서 중구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 1946년 10월 1일(화) 일제 잔재청산 의미로 현재의 다동이 되었는데, ‘다옥정교회’ 위치는 현 서울특별시청에서 가까운 태평로 파출소 부근(附近)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석기 선교사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함경남도 북청 지역 일대의 7개 마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배당도 신축하거나 한옥을 개조하여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청 지역은 ‘조선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북청 지역은 ‘조선 환원 운동의 발상지’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동석기 선교사는 1934년 9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 활동’에 대하여 알리고 싶어졌다. 또한, 앞으로 전개하고 싶은 ‘조선 선교에 대한 다방면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해야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1934년 10월 초 도미하였는데, 이 사실이 『신한민보』(1934.11.1.)에 실렸다.

“년 전에 미국에 재차 왔다가 귀국한 후 함경도 북청에서 종교 사업에 종사하는 동석기 목사는 지난달(1934년 10월) 24일(수)에 입항한 미국 여객선 프레지전트 후버호(胡佛總統號)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만에 정박하는 동안에 시내…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난 토요일(10월 27일) 아침에 프레지전트 후버호로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고 한다.”

미국에 도착한 동석기 선교사는 먼저 감리교회에 들러 말씀을 강론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감리교회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동석기는 도미 후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전적으로 순회하였다. 그는 간 곳마다 선교 보고를 통해 다방면의 협조를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6월 어느 주일날 자신을 조선 선교사로 파송해준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였다.

이때 테네시주 내슈빌의 감리교회 계통인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B. D 학위를 받게 될 조선 감리교회의 강명석 목사가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예배 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 사이에는 진지하고 깊은 대화가 오고 갔다. 이 만남에서 감리교회의 선배인 동석기 선교사는 후배인 강명석에게 감리

교회 목사로 사역했던 일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감리교회 목사로서 사역하였는데, 돌이켜보니 그동안 나는 감리교회의 교리를 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석기 선교사와 강명석 목사의 우연한 만남은 그동안 갈등하고 있었던 강명석에게 감리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도록 돕는 결단의 기폭제(起爆劑)가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강명석은 ‘귀국하여 조선 감리교회의 초대 감독(1930.12.~1938.10.) 양주삼[梁柱三, 1879.1.25.~1950.8.?] 목사의 후광(後光)으로 협성신학교(현 감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조선에서 환원 운동을 하느냐?’를 놓고 저울질하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만남은 조선 그리스도의 교회의 두 번째 선구자가 배출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강명석 목사는 1935년 6월 12일(수) 밴더빌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신학사(B. D.) 학위를 받았다. [Chris(2019.2.2. 밴더빌트대학교), E-mail(에빌린기독교대학교 강삼정 박사)] 이어 환원을 선택한 강명석



은 그의 결심을 확고히 하려는 마음으로 웨이버리-벨몬트교회의 립스콤(G. Q. Lscomb) 장로에게 6월 15일(토) 구원의 침례를 받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Gospel Advocate(1936), June 25, 621.] 훗날 동석기는 강명석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35년 내가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을 때 강명석 형제가 그곳에 있었다. 당시 나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주의만찬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예배에 강명석 형제가 참석하고 있었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80~281.]

동석기 선교사는 뜻하지 않게 강명석 전도자를 감리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도록 도우므로 인해 환원 운동의 동지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 기쁨을 간직한 채 미국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조선 선교에 대한 보고를 무사히 마치고 복청으로 돌아온 그는 그전보다도 더욱 활기차게 선교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이때 그는 자전거(自轉車)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설립하였고, 또한, 설립된 교회들을 순회하며 돌보는 교통편으로도 이용하였다.

동석기 선교사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늘 옆

에서 보조하며 훈련받던 동석기의 제자인 양석문 전도자는 ‘동석기 전도자는 북청 지역의 교회들을 2천 년 전의 예루살렘교회(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동 목사님의 복음 전과는 언제나 열정적이었습니다. 큼직하신 분이 우렁찬 목소리로 늘 ‘성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며 환원 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워낙 성격 자체도 대담하고 쾌활한 분이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북청 교회들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당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각 교파의 교회들이 생명력이 없이 시름시름 앓은 데 반해 동석기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도 어떤 구속도 당하지 않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생명력 없이 뜨뜻미지근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옛날 동 목사님이 계시던 그 북청 교회들이 그립습니다.” [『요셉처럼 살다간 동석기 전도자』]

이때 조선을 식민지배(植民支配)하고 있던 일제가 제2차 세계 대전(World War II, 1939.9.1.~1945.9.2.)

중인 1941년 12월 8일(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Pearl Harbor)을 먼저 공격하므로 전쟁을 도발(挑發)하였다. 이 전쟁은 결국 일제가 무모(無謀)하게 미국, 영국, 네덜란드, 소련, 그리고 중국 등 연합군(聯合軍)에게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일제가 일으킨 이 전쟁은 1945년 8월 6일(월)과 8월 9일(수)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廣島, Hiroshima)’와 ‘나가사키(長崎, Nagasaki)’에 원자폭탄(atomic bomb)을 투하하므로 일본의 패색(敗色)이 짙어졌다.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로 엄청난 피해를 본 일제는 전쟁을 더 지속하지 못하고 사태수습에만 급급(汲汲)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큰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는 절박감 때문에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고, 일본의 패배 선언으로 종전(終戰)되었다. 이 전쟁을 세계 전쟁사(World war history)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태평양 전쟁(太平洋戰爭, War of the Pacific, 1941.12.8.~1945.8.15.)’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독(惟獨) 패전 당사국인 일본은 지금까지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the Greater East Asia War)’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던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어느 날 동석기 선교사는 일경에 검거되어 구금되는 수모(受侮)를 겪었다. 그가 체포된 것은 일제의 전쟁 상

대국인 ‘미국의 간첩(間諜, spy)’이라는 누명(陋名)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경은 동석기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지만 ‘간첩죄(간첩행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아도 찾지를 못했다. 이때 그를 신문하던 일경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일경은 마지못해 풀어주는 것처럼 의사를 내비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고 동석기를 회유(懷柔)하였다.

“[일경] 평소에도 미국을 쉽게 오고 가는 것을 보니 까 당신은 돈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일본 제국의 성전(聖戰)인 대동아전쟁을 위하여 국방헌금(國防獻金)과 위문금((慰問金)을 헌납(獻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 주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동석기] ‘돈’이요? 아, 나에게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부의 돈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부할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네가 그렇게 궁(窮)하다면 약소하나마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돈의 어느 정도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나를 석방하든지, 아니면 다시 투옥하든지 당신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살다간 동석기 전도자』 참조.]